Q

KBS NEWS

분야별 ▼ 시사·다큐 ▼

[, rL 4. ▲ IA.

산림청 "울진 응봉산 불길 가장 세…인력 진화 한계로 진화 시간 길어질 듯"





ON AIR

소양강에 생태계 교란종 '브라운송어' 서식…"대책 서둘러야"

입력 2021.10.05 (21:39) | 수정 2021.10.05 (2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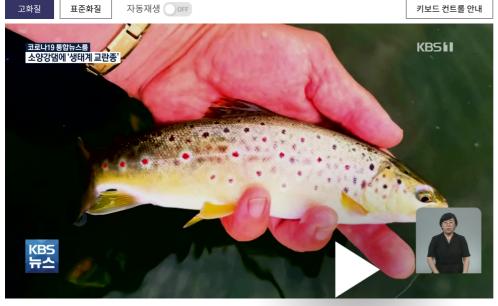
0 <

뉴스 9











"뭉쳐야 산다"…탄소중립 시대, 손 맞잡는 대기업

[앵커]

최근 소양강댐 하류에 악성 외래어종인 '브라운송어'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어류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춘천 소양강댐 하류.

얕은 곳까지 왔다가 붙잡힌 물고기, 외래어종 '브라운 송어'입니다.

머리가 어른 손바닥만 하고, 최대 1m 길이까지 자랍니다.

공식적인 수입 기록도 없어서 유럽이나 북미에 서식하는 어종이 어떻게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보 다 3.5%p↑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71.1%···19대보 다 4%p↑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표 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20대 대통령선거···전국 14,464개 투표소서 진행
- 6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다만 찬물이 일 년 내내 흐르는 댐 주변이 최적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소양댐 하륩니다.

이곳 일대에는 댐을 거쳐서 내려온 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온은 약 15도 내욉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하천엔 천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어류인 가시고기와 열목어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석/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장: "(브라운송어는) 30cm 이상만 되면 어식성(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습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열목어같이 멸종위기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올해 8월에야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후속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박장완/춘천시 환경정책과장 : "금년도에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매 어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매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문가들은 '브라운송어'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선 북한강 상류 하천 전체에 대한 서식 실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화면제공:시청자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9 전체보기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지역뉴스

부산 울산 목포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순천 전주 대전 강릉 원주 제주 청주 충주 춘천

뉴스 아카이브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